

해 외 출 장 보 고 서

중국의 『채소박람회 참관 및 채소류 유통·수출 현황』 조사에 대한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중국의 채소류 생산현황과 수출잠재력 등을 파악
- 수출용 김치의 생산 및 수출현황 파악
- 중국 채소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현황 파악
- 중국 파이공 농산물 유통현황 파악
- 국제 채소박람회 참관

2. 출장자

- 선임연구위원 박동규(농업관측정보센터)
- 부연구위원 신용광(농업관측정보센터)
- 초청연구원 윤종열(농업관측정보센터)

3. 출장기간: 2008. 5. 6 - 5. 10(3박 5일)

4. 출장지역: 중국 산둥성(청도, 청주, 수광시 일원)

5. 출장결과: 별첨.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장건명: 중국 채소박람회 참관 및 채소류 유통 · 수출 현황 조사

2. 출장목적

- 중국의 채소류 생산현황과 수출잠재력 등을 파악(고밀현, 수광)
- 수출용 김치의 생산 및 수출현황 파악(교주)
- 중국 채소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현황 파악(수광, 청도)
- 중국 타이공 농산물 유통현황 파악(청도)
- 국제 채소박람회 참관(수광)

3. 출장기간

- 2008년 5월 6일(화)~5월 10일(토)(3박 5일간)

4. 출장자

-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정보센터장
- 신용광: 부연구위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팀(총괄)
- 윤종열: 초청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팀(고추, 감자)

5. 출장 세부일정

날짜	방문 기관 및 지역	세부일정
5.6(화)	· 서울 출발→청도→평도→고밀→수광	· 마늘, 양파, 쪽파 재배현황 조사
5.7(수)	· 수광	· 국제 채소박람회, 당근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방문
5.8(목)	· 수광, 교주	· 수광시 도매시장 방문 · 김치수출업체 방문
5.9(금)	· 청도	· 타이공 농산물 유통현황 조사

II. 주요출장결과

1. 고밀현 쪽파 재배단지

- ☐ 방문지역: 산동성 고밀시 경태수출채소기지
- ☐ 면담자: 왕경태
- ☐ 조사내용

- 경태수출채소기지는 정부로부터 채소재배 모범기지로 선정되어 농약, 비료 검사 등 생산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작목은 쪽파, 부추, 딸기임.
 - 재배면적은 쪽파 300무, 부추 60무, 딸기 50무이고, 생산량은 쪽파 1,000톤, 부추 500톤임.
- 특히, 쪽파는 중점 재배 작목으로 전량 일본의 건조스프 가공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 거래처로부터 유기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등을 공급받고 있으며, 공장 출고가는 톤당 1,800원임.



<쪽파 재배단지>



<딸기 재배단지>

- 이 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명성이 매우 높음.
 - 국내외 가공업체의 선호도가 높아 농산물의 확실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음.
 - 가공공장과의 계약재배는 수급상황에 따라 가공공장과의 거래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낮을 수 있으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데 큰 이점이 있음.

2.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재배단지

- ☐ 방문지역: 산동성 평도시 완산현, 정남현 마늘, 양파 재배단지
- ☐ 면담자: 류순복
- ☐ 조사내용

- 정남 지역의 고추 재배면적은 3만무로 냉동고추 제조에 쓰이는 금탑 재배가 주를 이룸.
 - 약 200무 정도는 절임고추를 재배하며, 정식 시기는 5월 10일~20일 전후로 이루어짐. 마늘 후작으로 고추가 재배됨.
 - 2007년 기준 공장 납품 가격은 kg당 3元이었고, 4元은 되어야 소득이 보장됨.
 - 고추 시세에 따라 농가들이 판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장 업주는 계약재배를 꺼려하고 있음.
- 주요 고추 품종은 익도홍, 금탑, 한초 3호 등임. 익도홍은 청도 인근의 교주, 덕주, 평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최근에는 신강 위그로, 내몽고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 농업인력 1인당 일일 노임은 50~60元으로 5년전에 비해 2.5배 상승하였고, 도시근로자의 35元보다도 1.5배 높은 수준(일시고용으로 임금이 높은 편)임.



<마늘 재배단지>



<양파 재배단지>

- 마늘 주요 재배지역은 완산현, 장남현으로 면적은 약 3만무 정도임. 마늘 재배에는 유기질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음.
 - 상품 비율은 전체 생산량 중 80%에 이르고, 품종은 육쪽 마늘임.
 - 품질은 중국의 농산물 품질 인증 기준인 녹색식품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농약 농산물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마늘 재배면적은 정체 내지 소폭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양파 재배면적은 마늘보다 규모가 작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양파 대체 작물은 당근이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2~3무 내외임.

3. 냉동고추 제조업체

- ☐ 방문기관: 산둥성 평도시 청도명신농산
- ☐ 면담자: 장소광 경리
- ☐ 조사내용

- 취급 품종은 금탑, 익도홍이고 냉동고추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금탑 취급 비중이 80%를 차지함. 인근의 대규모 냉동고추 제조업체수는 5개임.
 - 냉동고추 연간 수출량은 2,000톤임. FOB 청도 가격은 톤당 3,600~4,000元이고, 부산항으로의 통관비용이 인천항보다 적게 들어 부산항으로의 수출이 많은 편임.
 - 인건비, 비료비 상승으로 금년산 고추 수확기 이후 냉동고추 산지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냉동고추는 수확 시기에 홍고추를 일괄 구입하여 제조하고 냉동저장한 후 방출함.
 - 금탑은 동북 3성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수확기 때 산지를 순회하여 직접 물량을 확보함. 익도홍은 취급 비율이 낮아 인근의 덕주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함.

4. 수광시 채소도매시장

- ☐ 방문기관: 수광시 채소도매시장
- ☐ 조사내용

- 운영주체는 수광시 채소도매시장 유한공사이고, 시장규모는 약 40만㎡의 대지에 건평 20만㎡임.
- 일일 반입량은 8톤 트럭 약 3천대이고, 발떼기로 상인이 반입하는 물량이 대부분이고 농민들이 직접 출하하는 비중은 낮음.
- 상장수수료는 거래액의 2.3%임. 이중 구매자가 1.1%, 판매자가 1.2%를 부담함. 중개인은 약 120명임.

○ 품목별 거래가격(단위: 500g)

<500g당 품목별 거래 가격>

품목	가격	품목	가격
대파	40전	당근	40전~50전
신선고추	70~85전	감자	70전~90전
양파	40전	마늘	30전
배추	15~20전	양배추	30전
애호박	25전	호박	95전

주: 가격은 2008년 5월 7일 기준임.



<배 추>



<마 늘>



<각종 채소 선적 모습>



<당 근>

5. 수광시 당근가공공장

- ☐ 방문기관: 수광시 사방식품유한공사
- ☐ 면담자: 곽희년
- ☐ 조사내용

- 중국 당근 재배 지역은 산둥성의 수광, 내서, 산서, 내몽고, 복건성의 하문 등임. 산둥지역의 경우 중국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광 지역의 재배면적은 5만 4천무 정도임.
 - 지역별 당근의 선호도는 하문 당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수광 당근, 내몽고 당근 순임.
- 당근 재배는 하우스와 노지로 구분되고 노지재배가 80%를 차지함.
 - 두 작형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으며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농가당 3~4무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가공공장과의 계약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방유한공사의 2007년 수출량은 3,500톤으로 2006년보다 75% 증가하였음. 일일 처리 물량은 60~70톤 내외임.
 - 전체 생산량 중 한국 수출 비중은 30% 내외임. 이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당근 규격이 180~250g인데 전체 생산량에서 180~250g의 생산 비중이 30%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임. 작황이 나쁠 경우 규격이 미달되어 한국 수출물량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 있음.
 - 전체 생산량의 70%는 180g 미만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됨.
 - 대한민국 수출단가는 2007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5월말 현재 500달러 내외임.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당근은 대한민국 수출단가보다 50달러 낮은 수준임.
 - 최근에는 가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순이익이 톤당 10달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역별 생산시기
 - 1월 중순~4월: 복건성 하문
 - 5월~7월: 수광, 내서
 - 8월~9월: 내몽골
 - 10월~11월: 수광(가을당근)
- 중국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당근은 20~30kg으로 대부분 세척당근이고 육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당근 가공공장 전경>



<당근 세척 장비>

6. 수광 채소국제전시장

- ☐ 방문기관: 수광시 채소국제전시장
- ☐ 관람내용

- 수광시 국제 채소박람회는 4월 말에 시작되어 약 한달 간 개최됨.
 - 전시관은 1~8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에 따라 채소, 과일, 화훼 등 전시품목을 구분했음.
 - 일부 전시관에는 농산물 이외에도 농자재 업체의 제품(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에 대한 전시도 이루어짐. 관계자에 의하면, 농자재 전시는 박람회 개최 후 3주까지 상황을 이루고 이후에는 농산물 박람회 위주로 행사를 운영한다고 함.
- 2008년 수광시 채소박람회 규모는 2006년보다 외관적으로 양적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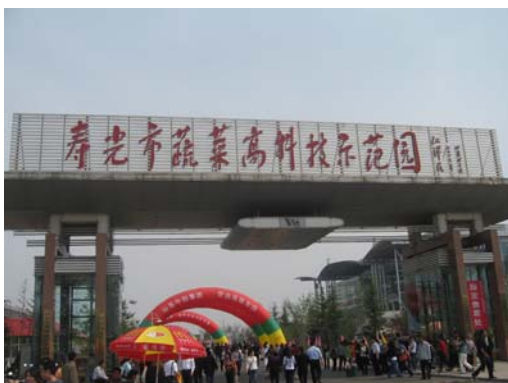
은 하였으나 전시품목이 방울토마토, 호박, 고추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있고, 호관별 전시품목에 대한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

- 전시품목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 관상용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더욱이 농자재 업체의 참여 기간이 짧아 재배관련 정보 파악이 어려웠음.

○ 호관별 전시물

<호관별 전시물 및 특징>

호관	전시물	특징
1호관	전체 품목	호박, 고추, 가지 등 채소, 과채류를 거대한 조형물과 조화시켜 볼거리를 제공함.
2호관	채소류	동일 품목의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하여 비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3호관	과일류	복숭아, 귤, 대추 등 과일류 나무 전시
5호관 7호관	과채류	고추, 토마토 등 일반적인 품목과 포자형 양배추, 줄 땅콩 등 희귀한 품목 전시
8호관	화훼류	포인세티아, 호접난 등 분화 위주로 볼거리 제공



<박람회장 입구>



<전시물>

7. 김치 가공공장

☐ 방문기관: 산동성 청도시 엔 푸드

☐ 면담자: 곽희철

☐ 조사내용

- 김치공장은 창산(3,000천평), 교주(2,000평) 지역에 운영 중이며 교주 공장에는 자체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함.
 - 1일 생산량 50~60톤임(창산공장 30톤, 교주공장 20톤).
 - 김치의 배추 수율은 70%임.
 - 배추 구매에서 가공, 수출까지 대략 7일 정도가 소요되며 거래 중인 한국 바이어는 7~8개 업체 정도임.
- 생산량 대부분이 수출용이고, 내수용 김치는 북경, 상해, 청도, 천진 등 대도시로 유통됨.
 - 김치 공장 이외 중국 내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유통망을 모색하고 있음.
- 기존 2006년까지만 해도 50개소가 넘었던 자금난과 중국 내 수출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는 상당수가 폐업 상황임.
 - 그 동안 김치 납품은 외상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졌는데 양국의 경기에 따라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세업체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였음. 이러한 경우 업체는 계약시 거래금액 전액을 받지 못해 폐업하게 됨. 따라서 최근에는 완불이 가능한 계약만 김치를 제조하는 경향이 강함.
- 김치 가공공장 위생 시설은 A 등급으로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김치 공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 오히려 한국인 소유의 김치 공장보다 더 우수함. 이로 인해 바이어들의 중국인과의 거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김치 세척기>



<김치 제조 과정>



<고추 가루 가공공장 전경>



<고추가루 제조 과정>

8. 파이공 무역

☐ 방문지역: 산둥성 청도시 청도항 인근 농산물 판매점

☐ 조사내용

- 보따리상 일명 “파이공”은 한국의 공산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한 금액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 전문 파이공은 청도, 연태, 위해 등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주요 품목은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찹쌀 등임.
 - 파이공들은 물건 구매, 운반, 판매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농산물은 전문 파이공 뿐만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구매할 수 있음.

전문 파이공의 1인당 연간 구매 횟수는 100회 정도로 추정됨.

- 외국 물품의 1인당 휴대품 반입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보따리상 물품 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전무한 상황임.
 - 휴대품 반입량은 품목별 1인당 5kg으로 총 50kg 이내에 휴대가 가능하나, 20kg 내외로 반입이 공공연히 허용되었음.
 - 일반 여행객은 자가소비 또는 전문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전문 파이공은 전문수집상, 대사인, 자가영업으로 판매함.
 - 최근에는 북경올림픽에 따른 보안체계 강화로 선상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반입량이 많이 줄었음.
- 파이공 농산물 국내 판매가격 추정(건고추, 1kg 기준)
 - 중국 구입가격: 3,200원(25元)
 - 국내 판매가격(A): 5,500원
 - 정상 수입가격(B): 8,200원(관세를 포함한 국내 민간수입 가능가격)
 - 이윤율: 42%
 - A/B: 67%

Ⅲ. 해외출장결과 시사점

- 산동지역은 남한면적과 필적하는 대규모 면적이며 평야지역이 펼쳐져 농업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더욱이 한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여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대부분의 농산물 품종이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임.
- 평야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류의 생산비는 국내산의 10%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제품으로는 중국산에 대한 국내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내 채소물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품질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내의 선호가 높아 이에 대한 농산물 수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로써 중국의 배(돌배)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한국 배(신고)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으며 포장BOX에 한국말을 적을수록 중국에서 선호가 높은 실정임.